

實證의 그물로 건져올린 옛陶瓷의 진실

「韓國陶瓷史研究」 펴낸 尹龍二 교수

공자의 이른바 ‘知天命’의 경지를 곧 바라보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첫 개인저술을 상재한 이에게서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란 말을 듣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20년이 넘는 연구생활 끝에 펴낸 첫 책을 “내 학문의 출사표”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세월을 더 멀고 길게 내다보는 것 또한, 웅만한 끈기와 성실성이 아니고선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이 못된다. 남보다 빠르게, 더 일찍 승부를 내리는 성공에의 조급증이 학문의 세계에서조차 무시 못할 시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의 결눈질이나 흔들림 없이 나름의 유장한 호흡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보기 드문 미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韓國陶瓷史研究」(문예출판사)를 펴낸 尹龍二 교수(48·원광대 국사 교육과)가 바로 그런 미덕의 주인공인데, 그러나 정작 윤교수 자신은 “게을러서 그렇지, 책 늦게 낸 데 무슨 의미를 갖다붙일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꽤 많이 속쓰러워한다.

“한마디로 늦깎이인 셈이죠. 재주가 부족한 탓도 있었구요. 도자사 연구가 원래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데다가, 책을 써내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 가마터를 뒤지고 도자기를 발굴하는 데 더 열중하다보니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도자사 공부를 중간 결산한 이 책을, 저는 제 학문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은 했으니까 가속도가 붙어 다음 책은 좀 일찍 한 10년 안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천명’ 바라보는 나이에 펴낸 첫 개인저술

「한국도자사연구」는 윤교수의 말대로, 늦은 출발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속도를 예감케 하는 충분히 튼튼하게 준비된 출발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모두 4장에 걸쳐 20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는 이 책은 형식상 논문집의 체제를 취하면서도 각각의 글들이 서로 총형으로 연결돼 있어 한국도자사의 폭넓은 개괄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우선 눈길을 끈다. 총론격에 해당하는 「한국도자기 발달사」 「고려·조선도자시기구분론」 「한국의 도자요지」 등을 비롯해 고려와 조선시대의 개별 도자기론 및 도자요지 연구, 그리고 북한의 도자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목차구성만을 일별하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금세 확인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제까지 도자사 연구영역에서 통설로 여겨지

던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자신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고려·조선도자 시기구분론」 같은 논문을 보면 최근의 연구성과에 힘입은 참신한 시기 구분이 크게 돋보인다. 이 글에서 윤교수는 고유섭·김원룡·최순우·정양모·강경숙 등과 일인학자들의 선행작업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한 다음, 그들이 미처 접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자료들을 발굴하고 구사해 현재로서는 가장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기구분론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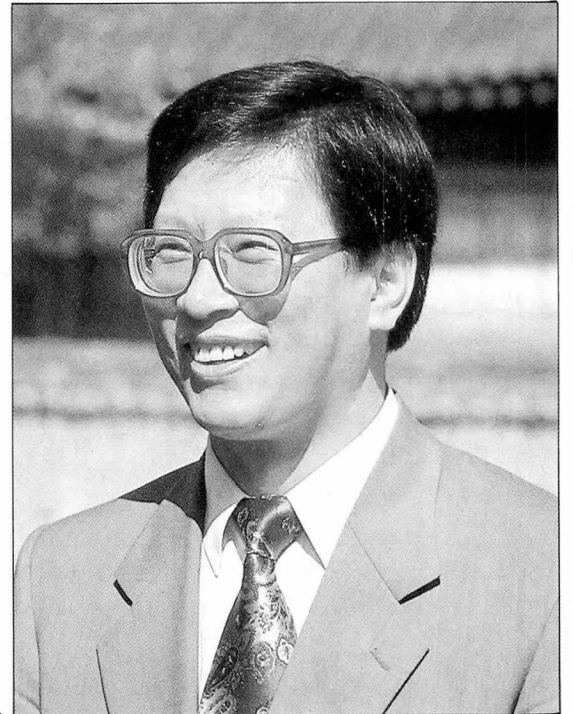
고려청자의 기원과 발전양상에 대해서도 윤교수는 현존하는 유물 및 문헌자료와 함께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를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설득력있는 견해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고려청자의 9세기 기원설은 부정된다. 光宗·成宗 연간인 10세기 후반 고려가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배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고려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10세기 후반 고려의 신지배층은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왕궁·관청·사원·저택 등이 세워지게 되며 새로운 문물로서 치장되었다. 또한 禪宗의 넓은 전파와 그에 따른 坐禪에 필요한 차를 담는 茶器으로써 瓷器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중국의 五代로부터 수입된 도자기로써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었지만, 신지배층의 확대에 따라 차츰 수입된 도자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고려의 중앙집권화가 추진되고 중국의 문물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국의 귀화인들과 중국문물에 익숙한 고려의 지식인들의 제언에 따라 중국도자와 닮은 고려도자의 제작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략)이처럼 고려청자의 제작은 중국도자를 닮은 고려도자의 제작을 원하는 고려 신지배층의 요구에 따라 10세기 후반경인 광종·성종 연간에 吳越國에서 도래한 중국 瓷器匠들로부터 製瓷器術을 배우기 시작한 고려陶器匠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려청자의 절정기는 최씨 무인정권시대”

현전하는 실물자료와 함께 당대의 사회상을 폭넓고 치밀하게 검증한 끝에 윤교수는 상감청자의 절정기를 13세기 전반 최씨 무인정권 때로 比定하고 있다. 몽고 침략에 따른 위축된 사회분위기와 南宋과의 국교 단절로 외부의

모두 4장에 걸쳐 20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한국도자사연구」는 외형상 논문집의 체제이면서도 각각의 논문들이 총형으로 연결돼 있어 한국도자사의 전체상 개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이제까지의 도자사 연구영역에서 통설로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 과감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윤용이교수.

문화적 자극이 없어지게 되자 고려도자 특유의 기형과 문양이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 “상감청자의 발전은 고려 자체 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高麗化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고려청자의 쇠퇴기를 14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인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漕運의 중단과 실용적인 도자기의 대량생산을 요구하는 신흥사대부들의 요청에 따라” 마침내 이때에 이르러 고려도자기 제작에 일대 변화가 초래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일반독자들 입장에서선 사소해보일지 몰라도 전문연구자들로서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도자 용어 문제에서도 윤교수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한다. 도자 용어의 재정립이 한국도자사의 골격을 바로잡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는 그에 의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자용어에는 일본문화의 영향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土器와 陶器는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陶器로서 통일되어 쓰여야 하며, 우리말의 절그릇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도자기와 한자의 나라인 중국에서도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陶器로서 사용되며, 우리의 옛문헌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沙器와 瓷器도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瓷器를 흔히 沙器로 불렀다. 오늘날 靑沙器·白沙器 대신 靑瓷·白瓷로 쓰고 있으므로 靑沙器도 靑靑

瓷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陶瓷器의 우리말이 ‘절그릇과 사기그릇’인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磁’器 대신 ‘瓷’器를 굳이 고집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고려사 등의 문헌과 중국에서 예부터 일관되게 瓷을 사용한 점, 그리고 瓷가 바람직하다는 고유섭 등 선학의 견해를 근거로 들며 “磁 대신 瓷”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靑華’나 ‘辰砂’ 백자의 경우 역시 일본식 용어이므로 ‘靑畫’나 ‘銅畫’ 백자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윤교수의 지적이다.

자료와 현장 증시하는 철저한 실증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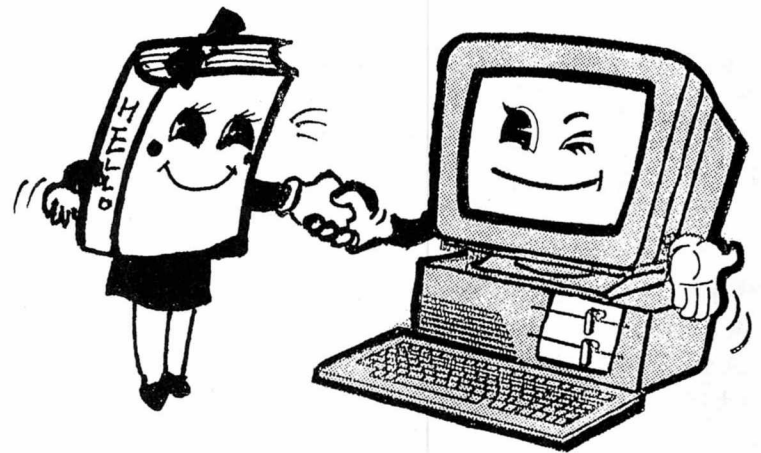
「한국도자사연구」 어디를 들춰보더라도 확인되는 바지만, 윤교수의 도자사 연구방법론은 대단히 실증적이다. 그의 이같은 실증적 자세는 때로 지나치게 꼼꼼해서 독자들의 접근을 쉬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재미가 덜하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도자기를 보고 만지며 즐기는 심미적 대상으로보다는 역사의 비밀을 증언하는 유물자료로 다루고 있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미술사인 「한국도자사연구」에 예술작품으로서의 도자기에 대한 심미적 평가나 해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이 도자의 역사에 비해 미술의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미술에 앞서 역사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출판사 사장님께 드리는 글

이런 일꾼이 있다면..

고지식하지만 시키는 일만큼은 깔끔하게 하고,
한달치 월급만 주면 평생 군소리를 안하며,
까다롭지 않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때로는 사장님께 회사를 위한 쓴소리도 하는.



신세대 감각의 출판사 전산화 프로그램

도서관리, 서점관리, 서점별도서관리, 영업관리
매입, 매출, 반품, 수금 관리, 도서수불장, 재고장
거래명세서 발행, 매출장, DM 발송
현금출납장 작성
미려한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는 경영정보
사용자 중심의 작업환경으로 누구나 쉽게 익힐
지속적인 기능향상을 통한 귀사의 업무지원

시스템 요구사항 : XT급 이상의 IBM PC 및 호환기종
8핀 이상의 도트프린터
필요한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 20메가바이트 이상

다년간의 출판사 전산개발 경력을 토대로 꼭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전화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구입문의 : (02) 859-7383, 4
F A X : (02) 863-2852



(주)청송소프트웨어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자기는 '작품'이기에 앞서 생활의 도구였거든요. 게다가, 조선백자가 아름답다거나 고려청자가 세계최고의 명품이란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 왔죠. 하지만 정작 그 아름다움을 낳은 '기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계최고라고 감탄만 할 게 아니라 그 세계최고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에 쓰기 위해 만들었는가를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 제작기술을 비롯해 器型이나 釉色의 특징, 외국과의 영향관계, 需給의 실상, 시대적 의미 등이 날 날이 밝혀진 연후야 비로소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문에서 "누구도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료에 근거하는 실증적인 자제가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윤교수는, 그래서 '현장'을 매우 중시한다. 이 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마터 조사연구가 그같은 현장중시주의를 잘 보여주거니와, 도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을 만드는 현장에 며칠씩 같이 묵으면서 "물레도 돌려보고 유약 실험도 해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사의 전시기에 걸쳐 남아있는 유물

1983년에 교수로 부임한 원광대와 함께 최근에는 이화여대와 홍익대에도 출강하느라 몇 년째 일주일의 반씩을 이리와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생활하는 윤용이 교수가 도자사 연구에 뜻을 세운 것은 성균관대 사학과 학부시절부터. 원래는 서양미술사 중에서도 르네상스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원을 거슬러올라가다보니 그리스와 간다라미술을 거쳐 마침내 신라불상에 가 닿게 되면서 경주 남산과 당시 덕수궁에 있던 국립박물관을 들락거리게 된다. 그 편력의 와중에서 자연스레 싹튼 우리 도자에 대한 관심을 한편으론 관련 책자들의 광범한 독서를 통해 충족시키고, 또 한편으론 대학원에 진학해서 본격적인 공부와 연결짓게 된다. 그래서 나온 첫 결과물이 석사논문 「조선시대 분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후 성대 박물관 연구원을 3년 남짓 지내고 1976년부터 8년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의 숭한 발굴경험과 학문적 은축이 이번의 「한국도자사연구」를 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의 사정을 윤교수는 이렇게 술회한다.

"대학시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자주 박물관을 찾곤 하였으며, 조용한 전 시설에서 미술사에서 배우던 많은 작품들을 만났으며 특히 도자에 관심이 끌렸다. 우연 고유섭 선생의 「고려청자」를 읽으면서 청자의 세계에 이끌렸고, 해곡 최순우 선생의 글에서 조선백자의 세계에 담당한 기쁨을 느끼곤 하였다. 그후 대학박물관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도자와 가까이 지내는 생활에 적지않은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다. 그 당시 한 어부에 의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우연히 발견된 해저유물의 인양이 시작되었고, 그후 발굴과 함께 수많은 중국도자를 정리하는 일을 계기로 일본 동경박물관에서 중국도자와 일본도자에 대한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청자·분청자·백자요지에 대한 답사를 통해 한국도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갈 수 있었다."

물론 "도자기 과편이나 매만지는 이 일에 과연 내 인생을 걸 만한가" 하는 회의를 때로 품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국내외의 유명박물관과 컬렉션을 두루 접하며 이미 한국도자의 명품으로서의 진면목에 깊이 빠져 있던 그에게, 한국도자사는 언제부턴가 "연구가 아니라 그 가까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행운"인 "위대한 세계의 발견"이었다. "도자는 선사시대를 포함해 한국사의 전시기에 걸쳐 유물이 현존하는 것으로는 유일한, 역사의 비밀을 캐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래서 그는 도자기를 골동품적 가치로만 보는 요즘의 세태를 씩 달갑지 않아 하는데, 도자 전문가치고는 드물게 제대로 된 소장품 한점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일 성싶다.

그런 윤용이 교수가 한국 도자 가운데 으뜸으로 꼽으며 깊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 수화 김환기의 화폭에 자주 등장하는, 풍성하지만 교태롭지 않고 소박하지만 절렬하지 않은, 저담백한 풍취의 달향아리 조선백자다.

—강철주 기자